“경전선 전철화, 도심외곽 노선 우회·지중화 사업 대안 제시”

허석 순천시장 “정부 방식 그대로 추진시 시민 생활 피해 예상”

“생태도시 순천 미래발전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 노선 결정돼야”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월24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허석 시장은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과 순천-목포간 남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광주 등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어 순천은 명실상부 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철도운행횟수 증가, 고압전철 구조물 설치 등으로 철도망 영향권에 있는 시민생활에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민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면 순천시내 평면교차로 10곳에서 하루에 열차가 46차례 지나다니며 30분에 한 대 이상의 고속열차가 도심을 관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인접 지역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피해가 발생되고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7m높이의 고압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도심경관을 훼손하고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허석 시장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철도노선을 도심 외곽으로 변경하는 것과 도심구간을 지중화 하는 것이다. 벌교역에서 순천시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 서면 전라선에 연결하고 도심구간 노선을 지중화하면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기존 철도노선은 정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생활권 개선을 위해 시민의 중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선 중 1930년 건설 이후 한번도 개량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기존 5시간 이상 걸렸던 광주-부산간 이동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된다.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순천시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경제성을 이유로 순천시 구간은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정주여건 조성 위한 생활공원 조성 박차

2022년 하반기 준공 목표 현재 95% 토지 보상 완료

광양시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시대’ 여가생활의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에 맞춰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규모는 52만㎡이며, 총사업비 920억 원(보상비 657억, 공사비 230억, 기타 33억)으로 2016년도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해 현재 95% 보상을 완료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 일부를 추진 중이며 산책로 약 8km(광장 및 휴게쉼터 포함), 주차장 1,101면, 보도육교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등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도심권 내 가족친화형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시설을 자연친수공간, 생활체육공간, 힐링공간으로 분류해 조성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관련부처를 선별해 부서 간 협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과는 자연친수공간에 환경부 생태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체육과는 생활체육공간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원과는 힐링공간에 산림청 유아숲체험원과 숲길 산책로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범 공원과장은 “워라밸 시대에 맞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누리며 다양한 즐길 거리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활기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여 광양시 정주여건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거북선축제, 가을로 잠정 연기

전라좌수영 수군 출정일 기념 5월 개최…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위해

여수시와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가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여수시 대표축제인 거북선축제를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을(9월~10월)로 잠정 연기했다고 지난 2월25일 밝혔다.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여수거북선축제는 2014년(48회) 세월호 참사, 2020년(54회)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 취소됐으며, 가을로 축제가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지역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타지역 확진자 방문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하고, 이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하는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여수거북선축제는 1592년 임진년에 첫 출전하여 11번의 해전에서 크게 승리해 임진왜란의 승기를 잡은 전라좌수영 수군의 출정일인 5월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에 개최해 왔다.

이종섭 제55회 여수거북선축제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에는 거북선축제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가을에 만나자”면서, “여수거북선축제의 꽃인 통제영길놀이를 대폭 개선해 웅장하고 역동적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에 공감한다”면서, “축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와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는 축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수거북선축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포럼 개최, 통제영길놀이 책자제작 등 축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통제영길놀이 집대성 책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배부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코로나 19’ 경기침체 대응 신속한 재정집행 뜻 모아

생활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
5억 이상 대규모 사업 진행 점검

고흥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공공부문 예산에 대해 더욱 속도감있게 최대 신속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2월 26일 군청 흥양홀에서 정하용 부군수 주재로 전체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억원이상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자체사업에 대해 집행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심으로 중점 논의됐다.

더불어, 이날 보고회에서는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소비 · 투자 부문 1분기 목표액 830억원도 중점 집행해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는데 모두가 뜻을 함께했다.

앞으로 고흥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4784억원의 60%인 2870억원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행안부 목표인 55.1%보다 4.9% 상향 조정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목표액 달성을 위해 80% 선금 특례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해 신속집행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10만 원 지원

보성군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보성사랑상품권(또는 현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월25일 밝혔다.

보성군은 운전면허 반납(경찰서)과 상품권 수령지가 다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